

차례상, 간소해도 격식에 맞게

차례상 음식의 5대 금기사항

전통 풍속에는 꼭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차례상에도 예외는 아니다. 전남과학대학 호텔조리김치발효과 김정숙(58) 교수의 도움을 받아 차례상의 금기 사항을 알아본다.

1. 마늘 양념 하지 않는다

훈채(訓菜·독특한 냄새가 나는 채소)식품으로 알려진 파, 마늘, 부추, 양파(락교), 생강 등 다섯가지는 예로부터 제사에 올리지 않았다. 여기에 고춧가루와 같은 강한 양념도 쓰지 않았던 것은 조상신을 모시는 성스러운 상이라는 생각에서다.

2. 탕·면·식혜는 건더기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기보다 예전에는 제사상에서 목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방수성이 없는 목기의 특성 상 국물을 오래두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3. 갈치 등 '치' 자 생선 금물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은 예로부터 너무 혼한 생선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다. 조상에게 올 음식은 뭐든지 가장 귀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쓰지 않았다. 또 이 생선들에게서 나는 비린내도 조상들에 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4. 붉은 팔은 쓰지 않는다

붉은 색은 주술적으로 이용돼 왔고, 팔 역시 귀신을 쫓는 의미가 있다. 조상을 부르는 차례상에 귀신 쫓는 음식을 놓을 수 없는 일. 그래서 팔을 꼭 쓸 일이 있을 경우 겹집을 벗겨 흰 고물을 내 쫓는다.

5. 복숭아 올리지 않는다

복숭아는 귀신들이 싫어하는 과일로 여겨졌다. 담장 안에 복숭아를 심지 않는다는 옛말도 있다. 무당들이 들고 있는 나뭇가지는 대개 복숭아 나무인 경우가 많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전통 차례상

병풍을 두르고 상을 편 뒤 지방이나 영정 등 신위(神位)를 모신다. 신위의 위치는 남자가 왼쪽, 여자가 오른쪽이다. 제사일 경우 신위 앞 첫 줄에 메(밥)와 갠(국)을 올리지만 설날 차례에는 떡국으로 대신한다. 서쪽부터 떡국-잔반(술잔과 받침대)-시저(숟가락과 젓가락)-잔반-떡국의 순으로 놓는다.

둘째 줄에는 국수와 삼적, 즉 육적(고기 구운 것)·봉적(닭고기 구운 것)·소적(채소 구운 것)을 올리되 봉적 대신 어적(생선 구운 것)을 올리기도 한다. 떡도 둘째 줄에 함께 둔다.

셋째 줄에는 육탕, 소탕, 어탕 등 삼탕을 놓는다. 종류를 달리 해 다섯가지를 얹어 오탕을 올리기도 한다.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어동육서·魚東肉西) 둔다. 생선의 머리는 동쪽을, 꼬리는 서쪽을 향하게(두동미서·頭東尾西) 한다.

넷째 줄에는 북어나 고기, 오징어, 문어 중 한 가지를 말린 포와 식혜를 각각 왼쪽과 오른쪽 양끝에(좌포우혜·左脯右醴) 놓는다. 그 사이에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등 삼채 나물과 간장, 백김치를 놓는다.

제주의 바로 앞에 위치하는 다섯

설이다. 설하면 떠오르는 것은 역시 떡국이 놓인 차례상과 세배다. 명절에 올리는 차례는 제례(祭禮)의 하나로, 조상을 추모하는 의미를 갖는다. 제사의 일종이라는 것인데 제사상 차리가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다. 하지만 핵가족화로 대표되는 현대인들은 불필요한 절차들을 없애 점차 의식을 간소화하는 추세다.

어디까지 지켜야하고, 어디서부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 '차례상은 가가례(家家禮)'라고 하는 말은 집집마다 조금씩 상 차리는 법이 다르다는 말이다.

같은 집이라도 형제끼리 다른 경우도 있다. 결국 조상을 기리는 방법과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해도 진실(陳設·상차림)법은 있다.

성균관에서 말하는 전통 차례상 차리기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권하는 명절 차례상을 비교해본다.

전통 병풍 두르고 가짓수 맞춰 다섯줄로

간소 형편 맞게 비싼 과일 안차려도 무방

셋째 줄에는 과일과 과자를 흥동백서(紅東白西·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 동조서물(東奏西粟·대추는 동쪽 밤은 서쪽)의 원칙에 따라 올린다. 홀수 줄에는 홀수, 짝수 줄에는 짝수로 음식의 가짓수를 맞춘다.

◇간소한 차례상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최근 설을 앞두고 '알기쉬운 명절 차례와 제사'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했다. 여성이 제주를 맡고, 인터넷으로 제사를 올리거나 호텔 또는 콘도 등 휴양지에서 차례를 올리는 가정이 등장하는 등 급변하는 현대에서 시대에 맞

는 전통의 변화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밥과 국 대신 떡국이 오른다는 것 외에 차례상도 평소의 밥상을 준비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차례상에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음식들은 술, 떡국, 포, 적, 전, 김치, 과일 등이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 시점은 신위 앞 첫째 줄의 가운데 또는 왼쪽에 놓는다. 모시는 조상의 수에 따라 시접과 떡국이나 술잔의 수도 맞춰준다.

포는 북어·상어·대구·문어·오징어·육포 등 생선·육고기류 중 한 가지로 사용하되 제물을 많이 준비하고자 한다면 대구포 위에 오징어·문어·육포 등을 올리기도 한다. 적과 전은 고인이 평소 좋아했던 것들을 올리면 된다. '적전중앙(炙奠中央)'은 적과 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차례상에 간장을 올리는 것은 간이 맞지 않는 음식에 간을 하라는 의미. 김치에는 고춧가루나 마늘 등의 양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물김치를 올리는 것도 관습이다. 상의 맨 앞 열에는 과일과 유과류를 놓는다. 그 해의 작황이 좋지 않거나 형편에 맞지 않게 비싼 과일은 과감히 생략해도 무방하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주부들에게 차례상 차리기는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다.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 차례상 강좌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통 차례상

북
서 4 동
남

간소한 차례상



차례 지내는 순서

① 진설(陳設)

제사상을 차린다는 의미. 제사상이 다 차려졌다면 지방 또는 영정을 모시고 함께 도열한다.

술을 따르고, 지방 앞에 놓는다. 떡국의 뚜껑을 열고, 시접 위에 놓여 있는 숟가락을 들어 떡국 그릇 위에 걸쳐 놓는다. 같은 방법으로 할머니의 위에 잔을 올린다.

② 강신(降神)

신이 내리는 과정이다. 향 앞에 꿇어앉아 분향하고 술을 붓는다. 고위(高位·모신 조상 중 가장 높은 할아버지의 위)의 잔을 내려 술을 따른다. 술을 모사(茅沙·제사지낼 때 그릇에 담은 띠의 묶음과 모래)에 붓고 일어나 제배한다. 참석자 일동이 두 번 절한다.

④ 유식(飭食)

참석자는 모두 함께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다.

③ 헌작(獻爵)

고위의 잔을 내려 술병을 들어

⑤ 사신(辭神)

신을 보내는 의식이다. 수저를 내리고 떡국 그릇의 뚜껑을 덮은 뒤 제자리에 선다. 참석자 일동이 제배함으로 예를 마친다. 잔을 내려 술을 비우고 상을 물린다. 참석자들은 제수를 소반에 옮겨 담아 기쁜 마음으로 음복한다.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드는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김동원

